건강기능식품, MZ세대 겨냥 모양부터 판매까지 대변신

젤리부터 필름까지…“건기식이 달라졌어요”

〈건강기능식품〉

▲고려은단의 ‘쏠라C 구미’

온라인몰·라방 비대면 마케팅 강화
젤리 등 다양한 형태의 건기식 눈길
맞춤형 제품 판매 서비스 관심 UP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가치소비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시장규모는 4조9805억 원으로 5조 원대에 육박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선물보다 본인이 먹기 위해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졌다(표1 참조). 건강기능식품 인식이나 정보 취득도 많이 좋아졌다. (표2 참조)

중장년, 노년에 쏠려있던 시장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2030, MZ세대도 건강기능식품을 찾기 시작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다양해지면서 상품 모양부터 판매방식까지 보수적이던 건강기능식품도 확 젊어지고 있다.

●필름 등 다양한 형태 ‘편리미엄’ 만족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 편리성과 취향에 맞춘 다양한 상품 형태이다. 건강기능식품하면 으레 떠올리는 천편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먹기 편하고 휴대가 간편한 ‘편리미엄’(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된 상품들이 사랑받고 있다.

온유약품의 ‘진한 6년근 홍삼스틱’은 100% 국내산 6년근 홍삼을 사용한 스틱형 건강기능식품이다. 가방이나 소형백, 상의 주머니 등에 휴대가 간편하도록 제작했다. 웅진식품의 ‘알로에겔 면역젤리’와 고려은단의 ‘쏠라C 구미’ 시리즈는 기능 못지않게 식감과 먹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젤리형으로 만든 제품이다. 과거 의약품과 비슷한 인상을 주려고 알약이나 분말 형태를 선호한 것과 달리, 이 제품들은 부담없이 즐기도록 젤리나 구미 등 젊은층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형태를 띠고 있다.

유유제약의 ‘로열그린 프로폴리스 필름’은 필름 형태로 나온 건강기능식품이다. 브라질 고산지대 약용식물인 바카리스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최대함량인 플라보오니드 17mg을 함유해 항산화 작용 및 구강 내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필름 형태는 휴대성도 좋지만,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입안에서 녹여 먹을 수 있고 체내 흡수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온라인몰부터 라방까지

유통의 새로운 주류인 온라인몰과 라이브커머스(라방) 등 비대면 마케팅에도 건강기능식품은 적극 진출하고 있다.

에프앤디넷은 자사의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락피도의 브랜드몰인 ‘락피도몰’을 최근 오픈했다. 온라인시장 확대 및 소비자 구매패턴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및 여성 건강맞춤형 제품을 우선 선보이고 유산균관, 연령 맞춤, 기능, 소재별 등 직관적으로 메뉴 및 상품을 분류했다.

고려은단은 네이버의 예능형 쇼핑 라이브 ‘하하의 베투맨’과 제휴해 11일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하하의 베투맨’은 라이브 커머스에 예능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다.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세노비스 키즈도 22일 브랜드 최초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진행했다. 세노비스 키즈 브랜드 매니저는 “비대면 쇼핑 트렌드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첫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기식, 구독 서비스로 발전 기대

요즘 업계가 남다른 관심을 갖는 분야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다. 개인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추천받고, 관련 제품을 소분해 포장 판매하는 서비스다.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자 필요한 영양성분을 함량까지 맞추어 그에 맞게 만든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행동

구매 경험률	78.9%
평균 구매액	32만1077원
건강기능식품 구매	(선물용)28.7%(전년 대비 2.7%p↓) (본인사용)71.3%(전년 대비 11.0%p↑)

※ 자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정보 인지도

질문	응답률
일반식품과 차이 알고 있다	70.9%
건기식 인증 도안 알고 있다	74.9%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4월과 8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풀무원건강생활,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한국암웨이 등 17개 업체 172개 매장이 승인을 받았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형마트, 약국 등 17개 매장이 시범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전문가와 최소 한 번만 대면상담을 하면 이후에는 동일 제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정기구매가 가능하다. 요즘 대세인 ‘구독경제’ 서비스가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가능해져 시장이 성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gna.com

대표적 노인 질환 알츠하이머병…“꾸준한 근력운동으로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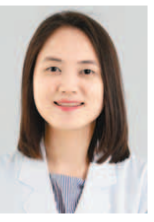
서울아산병원 김영식, 강서영 교수팀 연구서 밝혀
60세 이상 여성, 체중감소 크면 알츠하이머 위험↑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국가이다. 2020년 한국 고령화율은 15.7%로 일본(28.9%)에 못 미치지만, 2040년에는 33.9%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상적인 요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장수법으로 근력운동을 강조한다. 최근 대표적인 노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위해서도 근력운동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와 국제진료센터 강서영 교수팀은 알츠하이머병이 없는 60~79세를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1)와 알츠하이머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고령 여성의 경우 체중 감소폭이 클수록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김영식 교수


강서영 교수

연구팀은 4만5076명의 체질량지수를 2년(2004년~2005년) 및 4년(2006년~2007년) 단위로 비교해 체질량지수 변화의 정도가 알츠하이머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은 2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5~10% 감소한 경우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1.14배, 10.1~15% 감소한 경우 1.44배, 15% 이상 감소한 경우 1.51배 높아졌다. 4년 동안 체질량지수가 5~10% 감소한 경우는 1.31배, 10.1~15% 감소한 경우 1.6배, 15% 이상 감소한 경우 1.68배 높아졌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조직이 줄어들고 뇌기능까지 악화되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인지기능 저하와 망상, 불안, 공격성 등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상실되어 간단한 일상사도 해낼 수 없게 된다.

연구를 진행한 강서영 교수는 “체질량지수가 감소하면 영양소 결핍과 호르몬 변화가 발생하며, 이는 인지기능 감퇴로 이어져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령에서 체중 감소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여성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고령에서 영양섭취 부족으로 인한 체중감소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뇌 건강 및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최근 게재됐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광동 옥수수수염차, 선미 주연 새 캠페인 공개

광동제약은 가수 선미(사진)가 출연하는 광동 옥수수수염차의 새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광동제약은 올해 옥수수수염차 캠페인 슬로건을 ‘몸 안과 밖을 가꿔주는 워너V 습관’으로 선정했다. 선미가 젊은 세대의 워너비 스타임에 착안해 옥수수수염차가 꾸준히 전개해 온 ‘V라인’과 접목해 ‘워너V’라는 신조어도 만들었다. 새 캠페인은 실내 생활을 다룬 ‘하루 종일 팅팅팅’ 편과 실외 생활을 다룬 ‘하루 종일 빵빵빵’ 편으로 구성했다. 광동제약은 2006년 광동 옥수수수염차를 출시했고, 2010년부터 국내 차 음료 매출 1위(닐슨코리아 통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뮨온시아, 중국에 5400억 규모 기술수출

유한양행 자회사 이뮨온시아는 중국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3D메디슨과 4억7050만 달러(약 54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뮨온시아는 3D메디슨에 CD47 항체 항암신약후보 물질 ‘IMC-002’의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중국 지역 전용실시권을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뮨온시아는 3D메디슨으로부터 계약금 800만 달러(약 92억 원)와 중국 내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4억6250만 달러(약 5320억 원)의 기술료를 받는다. 매출액에 따라 단계별로 경상기술료도 지급받는다.

노동영 강남차병원 병원장, 베르티스 공동대표 취임

유방암 분야의 권위자인 노동영 교수(사진)가 조기진단 기술 개발 기업 베르티스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베르티스는 기존 한승만 대표이사와 노동영 대표이사가 함께 경영하게 된다. 노동영 신임 대표는 30년 이상 유방암을 치료한 전문가로 베르티스의 대표제품인 ‘마스토체크’의 개발자이다. 서울대병원 유방센터장, 암센터소장,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등을 거쳐 현재 강남차병원 병원장 및 유방센터 임상교수를 맡고 있다. 또한 대한암협회 회장,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장 등도 맡고 있다. 이번 선임으로 강남차병원 원장과 베르티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됐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1일(목) 음력: 2월 20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띠	행운색	길방	운세
쥐	흰색	서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오늘은 묘일이다. 쥐띠가 토끼를 만나면 자묘형으로 풍파가 일어난다.
소	적색	남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호랑이	적색	남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반복되는 일이나 중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
토끼	검정	북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용	적색	남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뱀	노랑	중앙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오늘은 장애가 많은 날이다.
말	청색	동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기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이성문제, 탈선을 조심하라.
양	적색	남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행동하라.
원숭이	노랑	중앙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닭	검정	북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돼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좋겠다.
개	적색	남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영화감상 등 휴식이 도움 되겠다.
돼지	청색	동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1일(목)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서울	0/30	10	23
인천	10/30	10	21
춘천	0/20	6	22
강릉	0/20	9	16
대전	20/30	9	20
전주	20/30	9	21
광주	30/30	10	20
대구	10/30	9	18
부산	20/30	12	17
창원	20/30	9	18
제주	20/30	14	18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4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